

무안군, 농산물 해외수출 결실

새로운 판로 개척... 연말까지 3,000톤 예상

양파즙 등 가공품 이르기까지 수출품목 다양화



무안군은 11월 말 기준 양파와 단호박 등 8개 품목 2,727톤에 대해 수출액 1,709백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량 404톤 335백만 원과 비교해 보면 375% 증가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무안군은 올해 초부터 양파의 과잉 생산을 우려해 수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해의 수출로 양파 소비를 유도하고자 자체사업 880백만 원, 보조

사업 150백만 원 총 1,030백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긴급 확보하여, 농협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로 그 뒤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었다.

이들 시장에서 농산물 2,600톤을 수출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27톤을 수출했다.

수출 품목도 양파 2,143톤, 배추

213톤, 양배추 209톤, 버섯 80톤, 단호박 23톤, 멜론 10톤, 김 5톤, 양파즙 4톤 등 채소류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어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성과도 이뤘다.

특히, 2,143톤을 수출한 양파의 판매량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과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친 결과다.

양파 소비 촉진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이뤄졌으며 전남서남부채소농협(576톤), 평화영농조합(1,447톤) 등이 동남아시아로 양파를 수출하여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앞으로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 농가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수출량 3,000톤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삼 무안군수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출하처를 다양화 해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와 가공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무안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무안 양파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암군 2020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자 접수 시작

영암군이 지역 저소득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전라남도과 22개 시·군이 연계하여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청년이 3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원자금을 대칭 적립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 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한다.

사업 대상은 전라남도 내 주민

등록을 둔 만 18세 ~ 만 39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으로, 사업지침 상 저소득이란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를 말하며, 근로 청년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사업 공고일 기준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는 자를 뜻한다.

군 관계자는 오는 '19년 12월 26일부터 20년 1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하며,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

항은 영암군청 인구정책팀(061-470-2080)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신청 접수 단계부터 서류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이외에도 주거안정, 고용안정 등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청년 정책 지원의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 원도심일대는 지난해 8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 공간단위 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

록되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화재를 통한 지역재생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로서 향후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의 착수보고이다.

용역은 원도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근대건축자산 및

거리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도출해 향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의 기초를 마련한다.

시는 보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및 제안사항을 실행 타당성 검토를 거쳐 종합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식 시장은 "원도심 일대는 1897년 자주적으로 개항한 최초의 근대도시라는 굉장한 소중한 의미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곳이다. 목포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잘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성공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동백, 노을빛을 품다’ 강종열화백 초대전

압해도 저녁노을미술관

세찬 바닷바람과 한파를 이겨내고 선홍빛 꽃을 피우는 동백은 겨울꽃의 결정체로, 강인한 생명력과 정열을 상징하는 꽃이다. 눈 내리는 겨울부터 따뜻한 기운의 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동백꽃, 화려하게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봉오리의 애뜻함은 오래전부터 시인과 화가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좋은 소재였다.

신안군은 섬 겨울꽃, 애기동백 숲이 펼쳐져 있는 압해도 송공산 분재공원의 저녁노을미술관에서

‘동백, 노을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강종열화백 초대전을 갖는다. 강화백은 여수에서 활동하는 원로화가로 오랜 시간 동백을 그려온 탓에 ‘동백화가’로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그는 우리의 정신적 뿌리와 같은 강인한 동백숲과 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백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엿보고 이면에 숨은 진실된 모습을 추구해 왔다.

작가는 1004섬 신안의 섬 곳곳을 예술로 꽃피우는 신안군의 뜻에 공감하여 본인의 작품 활동과 다른 전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뜻 작품을 출품해 초대전이 성사됐다. 압해도의 저녁노을미술관에서 내년 1월 말까지 전시된다.

‘맘(mom) 편한 강진읍 만들기’ 도시재생 워크숍 개최

강진군이 16일 강진읍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진읍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맘(mom) 편한 강진읍 만들기’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울림센터, 공유정원, 테마골목길 등을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공간

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공간 및 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들이 직접 공간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여성에게 필요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여성친화적 사업이 제안되었다. 여성 일자리와 여성 커뮤니티, 보육과 돌봄 등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에 필요한 전반적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시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부서협업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강진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